



미 증시, 수요 부진 우려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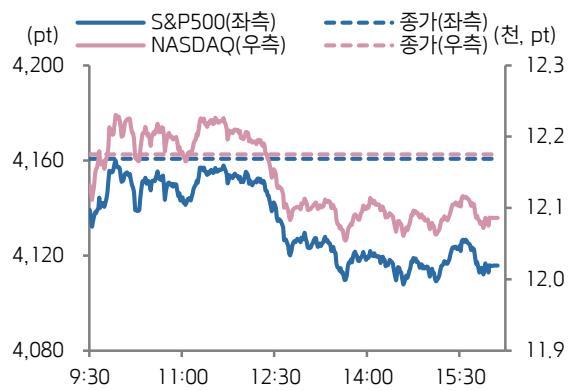
8일(수) 미국 증시는 장초반 기술적 매수세 유입에 힙입어 반등세를 보였으나, OECD의 성장을 전망 하향에 따른 침체 불안 재점화, 수요 부진에서 기인한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5월 소비자물가 경계심리 등으로 하락 마감 (다우 -0.81%, S&P500 -1.08%, 나스닥 -0.73%, 러셀 2000 -1.49%)

전일 세계은행에 이어 OECD 역시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2.5%로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확산되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를 재차 돌파.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월과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각각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며 긴축에 대한 경계 심리를 높임.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휘발유 재고가 감소하며 유가는 120 달러를 상회한 영향으로 강세를 보인 에너지업종(+0.2%) 제외 전업종이 하락. 인텔(-5.28%)은 경영진이 반도체 부문 수요 약화 및 2분기 실적 부진 가능성을 언급한 영향으로 하락. 한편,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더해 게임 판호를 추가 발급했다는 소식에 알리바바(+14.7%)를 비롯한 중국 기술주에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큰 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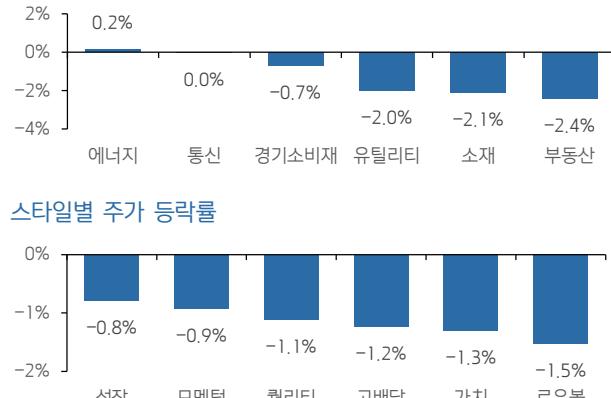
미국 4월 도매재고는 전월 대비 2.2% 증가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2.1%를 상회했으나 전월치인 2.3%를 소폭 하회. 미국 모기지은행협회에서 발표한 지난 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6.5% 감소하며 22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주택 재고 수준이 낮고 모기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이라고 언급했으며 이 여파로 부동산 업종(-2.4%)은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115.77	-1.08%	USD/KRW	1,253.63	-0.33%
NASDAQ	12,086.27	-0.73%	달러 지수	102.54	+0.22%
다우	32,910.90	-0.81%	EUR/USD	1.07	+0.01%
VIX	23.96	-0.25%	USD/CNH	6.70	+0%
러셀 2000	1,891.01	-1.49%	USD/JPY	134.27	+0.01%
필라. 반도체	3,019.10	-2.3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017.83	-3.81%	국고채 3년	3.197	-3.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470	-7.2bp
Eurostoxx50	3,788.93	-0.47%	미국 국채 2년	2.774	+4.7bp
MSCI 전세계 지수	650.94	-0.56%	미국 국채 10년	3.022	+4.8bp
MSCI DM 지수	2,783.29	-0.7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73.74	+1.2%	WTI	122.11	+2.26%
MSCI 한국 ETF	66.03	-0.71%	금	1856.5	+0.2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1%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률은 1257.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주요국 성장 전망 악화 및 수요 부진 우려가 반도체 등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수급 패턴 변화
3. 중국의 수출입 지표 결과가 중화권 포함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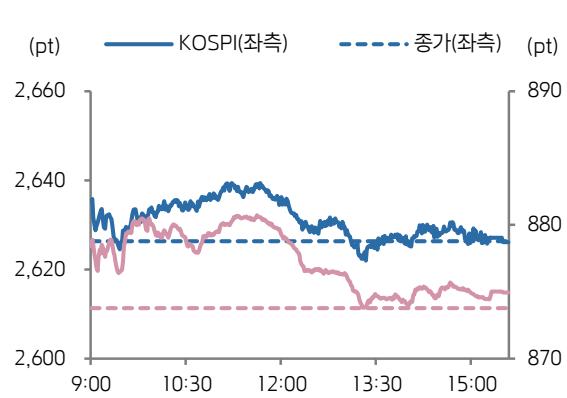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OECD 가 미국(3.7%→2.5%) 등 2022 년 전세계(4.5%→3.0%)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12 월 전망에 비해 하향조정했던 배경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인한 수요 부진 및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된 것에서 기인. 이는 지난 4 월 IMF(4.4%→3.6%), 6 월 초 세계은행(4.1%→2.9%) 등 여타 주요 기관의 성장을 하향 조정 배경과 유사. 또한 이들이 2022 년 미국(4.4%→7.0%), 유로존(2.7%→7.0%) 등 전세계(4.4%→8.8%)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큰 폭 상향했다는 점은 향후 물가 압력이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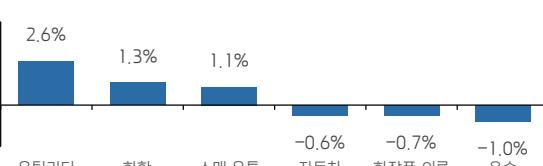
다만, 이미 가격 측면에서는 준침체급의 주가 조정을 받아오고 있으며, OECD 전망 상으로 G20 국가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 ‘22 년과 ‘23 년에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국가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해볼 필요. 더 나아가 성장 전망 악화의 주범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추가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상수화된 상태이며, 중국의 봉쇄조치 역시 6 월 이후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전반적인 중국 경제 반등세가 기대되는 상황. 이를 감안 시 당분간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수시로 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나, 주요국 증시의 연저점을 하회하는 수준의 하방 압력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금일 국내 증시는 OECD 성장 전망 하향 부담 우려 속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증시 약세에 영향을 받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인텔(-5.3%)에서 수요 부진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마이크론(-3.1%)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장중 국내 반도체주들의 주가 변동성을 유발할 전망. 또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장 후반 및 동시호가에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수급이 급변함에 따라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9 일 중국의 수출입 지표, ECB 통화정책회의, 10 일 미국 소비자물가 등 대외 주요 이벤트들도 대기하고 있음을 감안 시 관망세가 짙어지는 하루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인프라 투자 및 규제 완화 관련주(소재, 게임 등) 등을 중심으로 업종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